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6월 7일(금)

(윤력 5월 2일)

Пятница

7 июня 2024 г.

№ 22 (12089)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6월 6일은 푸쉬킨의 날이자 국제 러시아어의 날로 올해는 알렉산드르 푸쉬킨 탄생 225주년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푸쉬킨 소공원.  
(이예식 기자 촬영)

## 티몹스코에 구역, 2025년에 새 아파트 24동 건설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티몹스코에 구역 민기 안 무츠카예브 시장이 실무회의를 가진 가운데 티몹스코에 지역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보수공사, 건축, 도로사업 및 문화생활의 발전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했다.

시장이 지역 자체 정부가 결정하지 못하는 일련의 문제들을 제기하자 주지사는 지역에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5년간 티몹스코에 구역에는 노후주택으로부터 이주 및 새로운 주택 건설에 따른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었다. 2019년부터 이 지역에는 총면적 3만㎡가 넘는 18개 동의 아파트가 건설되어 33가구가 이사했다. 현재까지도 노후주택 22,140㎡가 남아있고, 499가구가 이주를 기다리고 있다. 2차 노후주택으로부터 이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61가구의 이주를 준비하고 있다.

향후 2년간 이 지역에 24개 동의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티몹스코에 마을과 크라스노고르스크 마을에 9개 동의 아파트가 완공돼 156가구가 이사하게 된다. 사할린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7개 동에는 작은 정원 구역도 마련했다. 또한 공공 장소 개선에 따른 작업도 한창 진행 중이다. 이번 실무회의에서 주지사가 관심을 둔 문제들 중 하나는 지역의 가스화 작업이다. 2023년에 이 지역에는 269가구 주택에 천연가스가 공급되었다. 올해는 400명의 신청자들이 가스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

회의에서 이 지역에 교육 및 문화생활의 발전도 논의한 가운데 티몹스코에 구역에 새로운 문화센터가 건립되었고, 아도-티모워에는 문화회관이 개관되었으며, 치르-운브드 마을에는 신축 민속문화센터가 개관되었다. 이들 기관에서는 장비와 악기들을 새로이 교체되고 있다.

## 올해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아파트 340개 동에 주요 보수공사 진행

올해 전 지방자치단체 아파트 단지 340개 동에 700개 이상의 구조물들을 보수공사를 할 계획이다. 지붕과 공공 시설망의 주요 수리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사할린 주두마의원들에게 보고했다.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사할린주 전 아파트 단지의 2만1,600개 구조물들을 정비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단지 186개 동에서 380개 이상의 구조물들에 대한 정비작업이 진행되었고, 기존 주택의 정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매해 아파트 400개 동에서 1200개의 구조물들을 보수공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택가 마당은 지난해에 1400곳 이상의 구역을 수리했고 올해는 전 주택가 마당을 보수공사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수리를 요하는 구역에 주요 보수공사를 할 계획이다.

올해 주택 진입로 공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내 총공사구역은 약

13,000 곳이다. 올해 연말까지는 공사가 필요한 모든 주택 진입로를 수리할 예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장과 소공원, 하천 제방의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150곳 이상의 새로운 공공 장소가 생겨났다. 2023년에는 주내 전 지역에 25개의 공공 장소가 조성되었는데 2030년쯤에는 이 수치가 2배로 증가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극동지역 행정자치단체들을 위해 러시아 건설부가 별도로 추진한 전 러시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우수 기획 경연에서 10개의 사할린 기획들이 우승을 차지했다.

"우리는 우리 시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의 수를 늘려야 한다. 올해는 21곳의 공공 장소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장소들은 전국 투표로 사할린 주민들이 뽑은 공간들이다."라고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덧붙였다.

사할린 지역의 조경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만 100만 포기의 꽃을 심었다.

새고려신문

## 2024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46,98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 단신

### 일본, 2024년 러시아 연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어 조업 할당량 확보

러시아와 일본의 대표들이 3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일본 선박의 연어 조업 할당량에 대해 협상을 하고, 그 규모에 합의했다고 일본 수산청이 전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어민들은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네르카(홍연어) 10톤, 송어 90톤, 연어 20톤을 포함해 124톤을 어획할 수 있게 된다. 이 조업을 위한 허가 수수료는 2500만 엔이다.

앞서 모스크바와 도쿄는 올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일본 어민의 연어와 송어 조업에 대한 협약을 맺어 어획량은 2050톤으로 러시아 강에서 일본 해역으로 이동하는 어류들이다. 이에 일본 정부가 지급할 금액은 1억8000만 엔 - 3억1300만 엔(현 환율로 120만 달러 - 210만 달러)이다.

### 6월 21일,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주민들과 직통대화

6월 21일(금) 15:00시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OTB-사할린' 방송을 통해 실시간 사할린 주민들과 직통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방송은 사할린 주정부 공식 페이지들에서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주지사에게 직접 질문하고 신속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화(8(4242) 670-391)로 주지사에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고, 더 원하는 질문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직통대화' 항목에서 문자로 또는 동영상으로도 접수된다.

### 유즈노사할린스크, 6월 7일 밤 난방 종료

6월 7일 - 8일 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주택 난방이 종료된다.

난방 종료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회 주요 시설의 난방은 7월 1일까지 공급된다.

여름에는 자원공급기관들이 수리 및 난방관 청소를 하고, 기관의 전문가들은 새 난방 시즌을 위한 대비책을 준비한다.

###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5월에 10만5,545명의 승객 이용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측은 5월에 공항 이용객이 10만5,545명으로 이전 기록을 경신했다고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4월 공항 이용 승객보다 11% 증가, 2023년 5월 대비 8% 증가했다. 봄의 마지막 달에는 1000대 이상의 항공기가 운항되었고, 이외에도 크라스노야르스크, 예카테린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행 새로운 항공편이 취항했다. 봄에 공항 이용 승객은 30만5,629명에 달했다.



##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기념 '재외동포와의 대화'개최

국내외 동포 온·오프라인 참여...국회 · 관계부처 등도 참석해 축하  
이기철 청장 '재외동포가 묻고, 재외동포청장이 답하다' 통해 1년 성과 소개  
"따뜻한 보듬기·민생 도움·손톱 밑 가시 빼주고 파급효과 큰 정책 추진할 것"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6월 5일(수) 인천광역시 송도에 있는 본청에서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재외동포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대화'는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재외동포들의 민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국내외 동포 8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고, 김진 국회의원,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특히, 이번 '대화'에는 지난달 경기도 안산에 정착한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중 최고령인 정태식(91) 어르신이가 가족과 함께 화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사할린 동포들의 영주귀국을 지원하다가 뒤늦게 고국 땅을 밟은 정태식 어르신과 가족은 자신이 지은 '사할린 아리랑'을 직접 불러 감동을 주기도 했다.

이기철 청장은 '재문정답'(재외동포가 묻고, 재외동포청장이 답하다)에서 1년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재외동포들이 민생 현장에서 직접 겪은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청장은 어떻게

바꾸었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도 대답하여 동포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먼저, 원폭 피해 동포는 지난해 대통령께서 최초로 고국에 초청해 보살펴 준 것에 큰 감명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이 청장은 "원폭 피해 동포 등 소외되어온 동포를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이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제'에 직접 참석해 원폭 피해 동포의 아픔을 보듬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임 관 한인회장은 해외 위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청장은 "과거에는 해외 위난 발생 시 재외국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왔지만,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라든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하며, "동포청은 이를 위해 생필품 지원금 예산을 확보하고 근거지침을 제정했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작년 7월 대한적십자사와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영주귀국 동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면서 귀국 과정에서 겪는 법적·행정적 어려움을 공유한 사할린동포의 질의에 이 청장은 "'사할린동포법' 개정(24.7.17. 시행)을 통해 영주귀국 대상자를 사할린동포의 모든 자녀로 확대하고, 법률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관계 등록 등 국내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 청장은 역사적 아픔을

겪은 사할린 동포들이 다시 고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평생 사할린 현지에서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영주귀국을 위해 헌신하신 정태식 어르신께 감사를 표했다.

국내 동포를 위한 교육 및 장학 프로그램 확대 요청에 대해서, 이 청장은 "국내 체류 동포용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내년도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동포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관계기관과 협

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개선 요청에는 "국내 교과서에 재외동포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국내 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기회 확대 요청에 대해서는 2024년 정부혁신 추진방향의 하나인 '청년 등 미래세대를 맞춤형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해외 일 경험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사업 외에도 국내 대학과 동포 기업을 연결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인턴십을 개발·확대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내 중소기업 대표의 해외 진출 지원 요청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 청장은 "재외동포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매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국내외에서 순환 개최하고,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상설 사무국'과 온라인 플랫폼을 설치하여 동포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교류 기회를 제공하며,

(7면에 계속)

## 이모저모

### '시리우스' 유형의 영재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일정 시작

사할린주에 '시리우스' 모델을 기반으로 영재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일정이 전개되었다고 사할린주 교육품질평가센터가 전했다. <스포츠>, <과학>, <예술> 3개 코스에서 집중교육이 진행된다. 집중교육은 6월 1일부터 21일까지 '위스토크' 교육훈련센터를 거점으로 3주간 진행되어 사할린주를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우수 강사와 교육자들의 지도로 주내 여러 지역에서 온 학생들 90명 이상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자질을 향상시키게 된다.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 교육부 장관은 "사할린주에는 영재들이 많다. <과학>, <스포츠>, <예술> 방면의 첫 교육일정은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시리우스' 유형의 사할린 영재센터 개설로 사할린 지역의 외딴 지역에서 사는 학생들을 포함해 주내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유익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어린 농구선수들은 공을 올바르게 다루는 법, 패스 및 점프력과 속도, 지구력 개발 등을 익히고 있다. 수영선수들은 수영기술 연구와 출발, 회전, 다른 중요한 단계들을 배우고 있다. 예술적인 학생들은 먼저 구도 잡는 법을 익히고, 미술 분야의 이론을 연구하며, 그림과 회화의 기법을 실제로 수행할 계획이다. 현대적 기술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에게는 인공 신경망의 세계를 더 깊이 연구하게 하고, 인공지능 사용의 윤리를 인식하며, 인공 신경망 및 기타 모듈을 만들 기회를 제공한다.

###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а новая смена для одаренных детей по модели «Сириус»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али старт нов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мене центра для одаренных детей по модели «Сириус».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Интенсив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по следующим трекам: «Спорт», «Наука», «Искусство». Смена будет длиться три недели с 1 по 21 июня на базе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ого центра «Восток». Раскрыть свои таланты и прокачать навыки смогут свыше 90 детей из разны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с лучшими тренерами и педагогами со всей страны, включая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ного одарённых детей. Первые смены по направлениям «Наука», «Спорт» и «Искусство» показали высокий интерес к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м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 программам. Открытие

сахалинского центра для талантливых детей по модели «Сириус» позволит обеспечить непреры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школьников, включая тех, кто живет в удаленных районах», - подчеркнула министр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Ребята буду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насыщенных программах. Юные баскетболисты осваивают навыки правильного ведения мяча, его передачам, развития прыгучести, скорости и выносливости. Пловцы займутся изучением способов плавания, стартов и поворотов и других важных моментов. Творческие школьники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над умением строить композицию, изучат теорию в области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будут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навыки в рисунке и живописи. Любителям соврем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дадут возможность глубже окунуться в мир нейронных сетей, познать этику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создавать нейросетевой модуль и другому.

### <건강 안내자> 포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진행

<건강의 안내자>포럼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진행된 가운데 주내 전역에서 300여 명 이상이 참가했다.

이 기획은 지역에 의료이용 편의성의 체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특히 사할린의 독거 주민과 홀로 운신이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더욱 시급하다. 건강 도우미들의 만남은 토론마당에서 자신의 경험을 논의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포럼의 목적은 환자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문제 해결의 강화방안을 통합하는 데 있다.

<건강 안내자> 기획은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기획의 본질은 의료 관리자가 만성질환의 주민들이 의사와의 진료를 예약하고, 검진을 받도록 돕는 데 있다. <건강 안내자> 기획은 의사에게 진료 접수일을 알려 주며, 특혜 약품의 목록을 작성해주고 있다.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форум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форум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на котором встретились свыше 300 специалистов со всей области. Проект должен сделать систему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регионе доступней. Особенно это актуально для одиноких островитян и тех, кому сложно передвигатьс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стреча проводников дала им возможность обсудить свой опыт на дискуссионных площадках. Цель форума – объединить усилия в решении вопросов заботы о здоровье пациентов.

Проект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начал работать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уть его в том, что медицинские администраторы помогают островитянам с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записаться к врачам, пройти об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напоминают пациентам

о днях приема у медиков, составляют перечни льготных лекарств.

### 유즈노사할린스크 주택 외벽에 화려한 그림들 탄생

유명한 거리 미술가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 6채 주택들의 외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시행정부가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러시아와 해외 거리 미술의 장인들이 참가하는 첫 번째 주제별 축제 진행으로 초여름의 시작을 알렸다.

새로운 예술 시즌은 아동창작회관 야외 마당에서 시작되어 이곳에 곧 새롭고 화려한 벽화가 생기게 된다.

'이 대상이 무심코 선택된 것은 아니었다. 아동보호의 날에 모스크바의 화가 티무르 포르코는 3D기술을 활용해 아동창작회관의 외벽을 장식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외벽 장식 활동은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지지한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 세르게이 나드사진은 새로운 예술-시설이 시의 관광적 요소가 될거라 확인했다.

거리 화가들의 작품들은 사할린주의 역사와 자연, 청년들과 그들의 관심사들을 소재로 하고 있다. 지난해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20개 이상의 건물들이 장식되었으며, 올해에는 50개의 건물들이 그림으로 장식될 예정인 가운데 건물들은 도시의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 На фасадах дом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явятся яркие граффити

Известные уличные художники начали расписывать шесть фасадов дом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Начало лета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отметили первым тематическим фестивалем,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российские и zahraniчные мастера уличного искусства. Новый арт-сезон стартовал на открытой площадке у Дворца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где скоро появится новый яркий мурал.

«Объект выбрали не случайно - в День защиты детей Тимур Форк, художник из Москвы, украшает в 3D-технике фасад Дворца детского юнош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 отметили в сообщении. Инициатором этого движения в региональной столице ст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дею поддержали жители.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in выразил уверенность в том, что новые арт-объекты станут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зюминкой» города. Работы стрит-художников будут посвящены природе 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молодежи и ее интереса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украсили более 20 зданий, в этом планируют преобразить сразу 50. Они будут готовы ко Дню города.

(8면에 계속)



## 고 리태수 태권도 사범 70주년을 기리며



지난 6월 1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고 리태수 사할린 태권도 창설자 추모 극동태권도 대회(ITF)가 약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주최 측이 이번 대회는 사할린에서 태권도를 심어준 고 리태수 사범 70주년을 기리기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예세닌 거리 1A 번지에 자리잡은 체육관에는 태권도, 합기도, 당수도 등 150여 명의 선수들이 경기에 나섰다. 이 대회에 러시아 국제태권도연맹(ITF) 칠피지스 라사로스 회장(검은 띠 8단), 국제당수도연맹 남인도 세계 총재, 한국 용인대학교 강성철 교수 비롯해 많은 귀빈들 초대되었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을 리태수의 형님인 리명수 씨가 환영의 인사를 전하고, 칠피지스 회장, 남인도 총재, 강성철 교수, 사할린한국교육원 정승훈 원장, 사할린 태권도 고수 민태출 사범(태권도 WTF검은 띠 8단), 러시아 당수도연맹 대표 알렉세이 부토린 사범 등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당부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여러 스포츠클럽의 선수들과 이름난 선수들의 멋진 시범 공연은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특히 알렉세이 수술린 선수, 알렉세이 부토린 사범과 안수학 사범의 시범에 박수와 응원의 소리가 오래 그치지 않았다.

이날 대회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사패와 메달 등을 수여했다.

### 리태수(러시아 이름 알레리 니콜라예비츠)사범 1954년 5월 30일 출생

그는 스포츠를 매우 좋아하고 다양한 스포츠를 즐겼지만 특히 무술-레슬링, 복싱, 그리고 가라테에 관심을 가졌다. 누구보다 시대를 앞서갔고, 심지어 가라테, 삼보, 복싱이라는 단어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인 카사보(KaSaBo)를 고안해 냈다. 1987년에 그는 조선 태권도 고수들을 만나 태권도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배능만 사범(현 조선공화국 태권도 ITF 세계시범단 단장)을 사할린에 초청했다. 최고의 태권도 장인으로서 배 사범의 등장으로 사할린 지역에 태권도의 발전은 시작되었다. 1992년 알레리 니콜라예비츠는 태권도의 창시자인 전설적인 장군 최홍희 국제태권도연맹(ITF) 총재를 사할린에 초대했다. 최홍희 장군은 그 동안 사할린에서 태권도를 익히고 사범으로 활동 준비가 된 18명의 선수들을 인증해주며, 그중 8명의 선수들이 국제 등급에서 검은 띠 1단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평양에서 복측 대사 3명이 오게 되었는데 이는 사할린 지역에 ITF 태권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7년 리태수는 자신의 이름을 딴 사할린주 사회단체를 설립하고 등록했다. 같은 해에 그는 형님인 리명수와 함께 개인적 자금으로 예세닌 거리에 위치한 체육관을 구입해 운영했다. 리태수는 명예 검은띠 3단을 태권도 창시자 최홍희 장군에게서 받았다.

비록 리태수 사범은 2001년에 사망했으나 그가 일생을 바쳐 이룬 일은 지금까지도 계속 후손들을 통해 발전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사할린에서 태권도를 심어준 리태수 사범을 기린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

(극동태권도대회(ITF) 주최 측)

## 사할린 한인 2세의 '서러운 아리랑'

이병일(전 사할린한국교육원장)

(전호의 계속)

이 가사의 핵심은 부모와 어린 오빠가 결국 다시 만나지 못하고 생을 마친 것, 그런 가없는 부모를 보는 자식들 모두 차마 맨정신으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가엾다는 점이다. 영주귀국의 기회가 오기 전에 돌아가신 불쌍한 부모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미어진다. 부모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도 없다.

이 아리랑의 마지막 가사들은, 그렇게 부모를 잃고 조국과 단절된 채 희망을 잃은 사할린 한인 2세대 자녀들의 심정을 그대로 외치는 절규다.

(조국 귀환을) 기다리다 지쳐 세상 뜨신, 우리네 부모님들 불쌍하오. 부모들 사무친 한 생하면, 애타던 자식들도 가여워라. 너나없이 서럽고 아파 어이하오.~"

2023년 9월에는 (썬)국악신문사(대표이사 기미양)를 통하여, 2023년 제8회정선아리랑가사짓기에서 특별상을 받은 사할린아리랑무용단 박영자 단장이 지으신 아리랑 가사를 받았다. 박 단장님 역시 일찍 부모를 잃고 영주귀국의 희망이 사라진 심정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속의 조국에 대한 이미지와 당시의 현실에 대하여 '사할린 2세 아리랑'의 가사로 만들었다.

### 사할린 2세 한인의 아리랑

나는 사할린 2세 한인  
하지만 부모 조국은 한국 이래요  
어렸을 때 저 산 너머가면  
우리 조국 땅인 줄 알았어요  
세월은 빨리 흘러 가고  
벌써 할머니가 되었어요.  
손자들이 커가면서 우리 조국이란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요.  
한국이 발전되어 잘사는 나라여서  
우리에게 참 자랑스러워요  
사할린 부모사망 2세 한인들  
언젠가 조국 품에 안아 줄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하루빨리 조국품에 안아주세요

어릴 적부터 조국의 존재를 믿고 한국어, 한국문화로 정체성을 지켜 왔지만, 영주귀국 신청 시기 이전에 부모를 일찍 여읜 사할린 한인 2세 어르신들의 심정은 한결같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한국을 조국으로 선택해볼 수 있는 기회가 당신들에게도 주어지면 좋겠다는 것이다. 설령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사할린 사회에 뿌리박은 삶의 터전을 옮기는 문제는 쉬운 선택이 아니다. 자녀들과의 이산, 다른 친지, 친구들과의 이산을 의미하며 기존의 러시아 정부로부터 받는 연금의 상실과 영주귀국 후 생활보장대상자 신분으로서의 생활 등 수많은 심적 갈등 상황이 존재한다.

그러나 조국이 부모의 한을 풀어 준다는 기본적인 정책의 도리와 그로부터 받는 부수적 혜택이면 충분할 수 있다. 그것은 당신들의 국적 취득이나 자녀의 유학이나 체류 등에 있어서 유연한 같은 혜택일 수 있다. 엄연히 식민지 시기에 강제로, 타지로 동원된 국민들의 자손이 아닌가 말이다.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되었거나 사할린에서 태어난 한인들을 '사할린 동포'라고 정의한다. 이분들이 영주귀국이 허용된 사할린 동포 1세대이다. 따라서 사할린에서 한 집안이나 동네에서 자란 언니, 동생, 친구라도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영주귀국 지원 혹은 희망과 신청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영주귀국 사업 개시 당시 생존하는 1세대 한인에 한하여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신청 및 허용 대상이 되었다.

결국 가족, 세대의 이산이 계속되는 문제가 있다. 1992년부터 시작된 사할린 동포 1세대의 영주귀국 사업으로 현재까지 4,700여 분이 홀로 또는 배우자와 함께, 그리고 2021년부터는 '이미 한국에 사시는 부모님'의 2세대 자녀 1인과 배우자가 한국에 영주귀국하여 사신다. 모두 이산가족이다.

2021년 10월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 정권에 항복하여 붕괴되던 시기, 그간 한국 정부에 기여한 아프가니스탄 국민과 가족들을 우리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목숨을 걸고 안전하게 데려온 미라클(기적)의 작전이 있었다. 그러한 쾌거는 우리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과 한국 정부의 도덕성과 형제애 및 인류애를 상기시킨다.

이러한 인류애와 형제애를 지닌, 정의로운 나라가, 강제로 희생된 일제침략기의 혈육과 자손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는 것은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또한 지나치게 엄격한 법률의 적용으로 인해, 명백한 국적 회복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황(영주귀국 후 국적 취득 전 사망하신 경우)에서 비인륜적으로 국적을 부여하지 않아 그 자녀들의 기회가 방기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법의 취지를 저버리는 일이다. 법의 사각지대는 극단적으로 냉혹하게 2세대 분들의 가슴을 갈라 놓는다.

물론 일본 정부나 러시아 정부와 얽힌 외교적, 법률적인 문제들이 순조롭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 해결의 전제 없이도 우리 정부의 결단이면 어느 정도 가능한 일 아닐까 생각한다. 하물며 대한민국 인구도 감소하는 추세에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오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시대에 대체 무엇을 망설이는지 묻고 싶다.

(끝)

###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기념

## 2024 한국어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공모 연장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쿠르(글짓기)를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특히 올해 러시아에서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만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공모기간:** 2024년 9월 중순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에 대한 정보는 차후 알려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으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십시오.

문의전화: 8(4242)43-59-80, 43-72-94.

콩쿠르조직위원회

##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длении сроков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5-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середины сентября 2024 г.

Учащим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ет выдан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граждении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зже.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4242)43-59-80, 43-67-85..

Оргкомитет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Уважаемая Виктория Идюновна!

Поздравляем Вас и всех сотрудников газеты, которые работали и работают в редакции «СЭ КОРЕ СИНМУН», с 75-летием!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этого времени газета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стается верна своему читателю и себе. Вы несёте очень благородную и нужную миссию – сохраняете родной язык, культуру, занимаетесь просвещением, являетесь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рупором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Как ваши коллеги мы знаем, что труд этнических журналистов нельзя назвать простым, он очень специфичен, требует большого терпения и искренней любви к своему делу. Но он, безусловно, важен и нужен.

От имени редакции «Коре ильбо»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о знаменательной датой! Желаю успехов, процветания, новых творческих идей!

31 мая 2024 г.

Гл.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Коре ильбо» Ким Константин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основателя тхэквондо на Сахалине Ри Те Су

1 июн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турнир по тхэквондо ITF, посвященный памяти основателя тхэквондо на Сахалине Ри Те Су. 30 мая ему бы исполнилось 70 лет. Он скончался в 2001 г., но труд всей его жизни успешно развивается. Сегодня на Сахалине тхэквондо занимается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человек.

Об этом поведали на открытии турнира.

Ри Те Су (Валерий Николаевич) очень любил спорт, занимался различными видами спорта, но особенно его привлекали единоборства – борьба, бокс, а затем и каратэ. Он опережал время и даже придумал собственный стиль Ка-СаБо – от слов каратэ, самбо, бокс. В 1987 году познакомился с мастерами тхэквондо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полюбил этот вид спорта. Поэтому пригласил мастера Пе Но Ман, который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является руководителем всемирной демонстрационной команды Тхэквондо ITF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 приездом Гранд-мастера Пе началось развитие тхэквонд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1992 году Валерий Николаевич пригласил основателя тхэквондо – легендарного генерала Чой Хон Хи, президент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федерации Тхэквондо (ITF).

За это время был подготовлен тренерский состав в количестве 18 человек. Генерал Чой Хон Хи провел аттестацию спортсменов, 8 из которых получили черные пояса I-го да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ласса. Также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трое Гранд-мастеров из г. Пхеньян (КНДР). Это способствовало дальнейшему развитию тхэквондо ITF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открытие турнира собралось немало гостей, среди которых президент федерации тхэквондо МФТ России Лазарос Цилфидис, президент Всемирной федерации тансудо Нам Ин До, профессор ведущего спортив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Ёнин(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Кан Сун Чоль, президент федерации хапкидо Ан Сухаги, гранд-мастер Мин Тэ Чур,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РК на Сахалине Чжон Сын Хун и др.

В турнире участвовало более 150 спортсменов, которые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свои бойцовские качества. Состоялись также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спортивных клубов и именитых мастеров – Алексея Буторина и Ан Сухаги, поразивших зрителей удивительным мастерством в кекхва(разбивание твердых предметов).

Организаторы соревнований хотят, чтобы спортсмены знали истоки и любили спорт.

(Наш корр.)

## Праздник для детей из «Звездного» устроил «Сахалин Ханин»



МООСК ЮС "Сахалин Ханин"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ригласил воспитанников детского дома "Звёздный" отпраздновать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нь защиты детей.

Для праздника вновь была выбрана уже полюбившаяся детям площадк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кулинарного парка в ТРЦ "Мегаберезка". 1 июня 15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4 до 7 лет весело провели время с аниматорами студии детского праздника "Пчёлка", вдоволь наигрались на детской площадке, наелись различных угощений, которые были предоставлены арендаторами Кулинарного парка, а также каждому ребенку был вручен подарок, сообщили в «Сахалин Ханин».

## Диалог с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состоялся в Инчхоне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отметило годовщину

5 июня 2024 года в Агентстве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расположенном в городе Инчхон, состоялся «Диалог с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приуроченный к празднованию первой годовщины создания нового для страны ведомства.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ое призвано курировать политику, касающуюся 7,5 миллионов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было создано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азднич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 онлайн и офлайн формате.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80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и в стране.

В рамках диалога с главой агентства г-ном Ли Ги Чхольем зарубежны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задать самые актуальные для них вопросы или высказать пожелания к работе ведомства.

Отрадно отметить, что в Диалог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и сахалинские репатрианты.

На видеосвязь вышла семья сахалинского старейшины Тен Тхе Сика (91 год), который переехал на ПМЖ в Ансан буквально месяц назад вместе с сыном и его супругой. Дедушка Тен Тхе Сик спел песню Сахалин Ариран собственного сочинения (песня – победитель конкурса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чем взволновал публику в зале.

Руководи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репатриантов Квон Ген Сок попросил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характера для 2-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репатриантов, связанную с установлением родства со своими родителями, которые были репатрированы ранее, а также трудности, возникающие в связи с изменением имени и даты рождения.

В ответ на просьбу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 трудностях, возникающих при возвращении на родину,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Ли Ги Чхоль сообщил, что в Спец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были внесены поправки о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которые вступят в силу 17 июля 2024 г.

«Мы распространим это на всех детей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за счет проектов юридической поддержки устраним неудобства, возникающие в процессе обустройства в стране, такие как регистрация семейных отношений и т.д.», — сказал он.

Глава агентства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естественной обязанностью государства является поддержка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спытавших историческую боль,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и выразил благодарность Тен Тхе Сику, который посвятил свою жизнь сохранению идентичност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а Сахалине и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л в работе по возвращен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родину.

От имени корё-сарам выступил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КРК Жанна Тен, которая, поздравив с годовщиной, обратилась к главе агентства г-ну Ли Ги Чхолью с предложением расширить обр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лева направо): Дю Хун Чун (Ансан), Квон Ген Сок (Пхадю), Пак Ден Дя (Кимпхо), руководитель АКРК Тен Жанна, Мун Чжон Хен (Инчхон).

зовательные и стипендиа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для корё-сарам,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визовую политику в отношен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а также разработать меры по улучшению восприятия корё-сарам корейским сообществом.

Г-н Ли Ги Чхоль в ответ заявил, что принял во внимание все замечания, высказанные главой АКРК, особенно отметив не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нынешней системы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виз, и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агентство активно сотрудничает с Минюстом в решении данного вопроса.

Что касается запроса на расширение программ образования и стипендий для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отметил: «Мы работаем над обеспечением бюджета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для разработк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для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 и мы обсудим стипендиа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На встрече были также затронуты вопросы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двойн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поддержки при кризисах и т.д.

Глава агентства Ли Ги Чхоль подчеркнул: «За последний год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стало прочной оградой для 7 миллионов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за границей, и прикладывает огромные усилия, чтобы стать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интересов зарубежной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Мы продолжим работать над политикой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практической помощи зарубежным корейцам, будем стараться, чтобы эта политика была по настоящему эффек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ила Виктория Б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совместно с Некоммер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Ассоциаци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МООСК «САХАЛИН ХАНИН»

Приглашает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I Фестиваль «Сахалинский намуль»

9 июня 2024 года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в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 Ю. Гагарина.

Открытие праздника в 11:00

●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 Мастер классы ● Ярмарка

● Конкурсы и розыгрыши ● Национальные игры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По итогам саммита РК-Африка принята совместная декларация

По итогам саммита РК-Африка, состоявшегося 4 июня, принята совместная декларация, которую огласили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и президент Мавритании Мохамед ульд Шейх Эль-Газани. Как отмечено в документе, участники саммита, прошедшего под девизом «Создаём будущее вместе», определили шесть ключевых направлений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Это торговля и инвестиции, официальная помощь в целях развития, модернизация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цифров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ответ на глобальные вызовы, мир и безопасность. С учётом того, что недра Африки хранят 30% мировых запасов минеральных ресурсов, участники саммита решили создать совместный орган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с поставками ключевых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Кроме того, решено расширить участие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в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х транспортных проектах в Африке,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их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втомобильных и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а также морских портов. Для этого решено ускорить заключение Соглашения об экономическом партнёрстве и Рамоч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о содействии торговле и инвестициям. В целях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африканскими странами РК увеличит размер офи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развитию до 10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к 2030 году, а также выделит 14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на поддержку экспорта. Участники саммита подтвердили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выполнению резолюций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и решили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усилиям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по достижению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 Спикеро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22-го созыва избран У Вон Сик

5 июня в Сеуле состоялось первое пленарное заседа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22-го созыва. Оно прошло без депутатов от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которые отказались участвовать в заседании, поскольку не смогли согласовать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оппозиции кандидатуры председателей ключевых парламентских комитетов.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егламентом, на первом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парламента нового созыва состоялись выборы спикера. По традиции он избирается от партии, имеющей большинство депутатских мест. Спикером был избран депутат от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пяти созывов У Вон Сик. Вице-спикер не избирался, поскольку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не представила свою кандидатуру.

## СНБ РК решил приостановить действие соглашения от 2018 года

3 июня Совет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НБ)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К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приостановить действие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глашения о снижении военной напряжённости от 19 сентября 2018 года в ответ на массовую отправку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воздушных шаров с мусором и отходами на южнокорейскую территорию. Данное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после консультаций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яда министерств. Оно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о 4 июня на утверждение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Действие соглашения должно быть приостановлено до тех пор, пока взаимное доверие между двумя Кореями не будет восстановлено,-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СНБ. С 30 ма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тправила на Юг около тысячи воздушных шаров с мусором и отходами в ответ на действи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активистов, отправляющих на Север воздушные шары с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ими листовками. Приостановка действия соглашения позволит проводить военные учения вблизи военной демаркационной линии и возобновить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ое вещание в направл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Объём онлайн-торговли вырос в апреле на 10,5%

По данны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3 июня, в апрел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объём торговых операций в интернете составил 19 трлн 802 млрд 700 млн won (14 млрд 410 млн долларов). Это на 10,5% больше, чем в том же меся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и самая большая сумма за апрель с 2001 года, когда начался сбор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данных. Наибольший рост в 18%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н в сегменте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Значительный рост также наблюдается в сегментах бытовой техники, путешествий, культурных контентов и отдыха. Покупки, совершённые через смартфоны, планшеты и другие мобильные устройства, составили 10 млрд 700 млн долларов,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11,9%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На их долю пришлось 74,8% общего объёма онлайн-продаж.

## «Криминальный город 4» приглашён на Шанхайски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Фильм «Криминальный город 4: Возмездие»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Хо Мён Хэна с актёром Ма Дон Соком в главной роли будет показан на 26-м Шанхайс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который пройдёт с 14 по 23 июня. Как сообщила прокатная компания ABO Entertainment, фильм приглашён в секцию «Полуночное фэнтези». Шанхай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считается крупнейшим в Китае наряду с Пекинским, а «Криминальный город 4» планируется показать во время фестиваля пять раз. Секция «Полуночное фэнтези» знакомит с жанровыми фильмами со всего мира, являясь одной из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программ фестиваля.

RKI

## Архиепископ Корейский Феофан освятил новый православный храм в Корее



2 июня 2024 года на острове Енджон в городе Инчхоне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архиепископ Русской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Феофан (в миру — Алексей Илларионович Ким) совершил освящение нового монастырского храма в честь преподобного Антония Великог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архиепископ Феофан управляет одновременно двумя епархиями Русской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Кызыльской и Корейской) и является первым корейцем, ставшим православным епископом,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канал KORE-SARAM/KORYO SARAM/고려인

От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добавим, что архиепископ Феофан имеет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ни, он родился и вырос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В Екатеринбурге состоялся Форум корейской генеалогии

В минувшие выходные Екатеринбург стал центром для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корейской родословной. 1 и 2 июня здесь с большим успехом прошёл Форум корейской генеалогии, объединивший специалистов и любителей, занимающихся поисками своих корейских корней. В первый день участники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етили Мемориал жертвам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на плитах которого высечены имена более 70 свердловских корейцев,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х здесь в 1930-е годы. Сам форум проходил 2 июня в отеле Атриум Палас. На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было подано более 50 заявок. География форума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выступающими из Екатеринбурга, Челябинска, Москвы, Якутска, Астаны (Казахстан), Южной Кореи.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оказались под большим впечатлением от исследования, которое провела Наталья Аужанова (Тен) из Астаны. На основе сохранившейся у родственников корейской родословной книги чокпо ей удалось восстановить собственную родословную до XIV века!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форума выступили Светлана Хасанова (Москва) и Виктория Хегай (Челябинск). Следующий форум корейской генеалогии запланирован к проведению в июле-августе этого года в Киргизии, на озере Иссык-Куль.

Источник: <https://t.me/saramkor>

FORUM

КОРЕЙСКОЙ ГЕНЕАЛОГИИ

2 июня 2024 г.

г. Екатеринбург

Темы: генеалогия корё сарам, особенности поиска, личный опыт исследований, ДНК-генеалогия, поиск в ЗАГС, судьбы семей в XX в.

Выступления:

Екатеринбург: В.Д. Тхай, Р.Н. Ан, Т.М. Знак, Н.Н. Латотина;

Москва: Д.В. Шин, С.Д. Хасанова-Люгай; Челябинск: В.А. Хегай;

Якутск: Егорова (Тхэ) Валерия Ивановна; Казахстан: Н.В. Аужанова;

Южная Корея: Джан Вон Чан

ул. Куйбышева, 44

Атриум Палас Отель

Тел.: 8-919-344-00-00

t.me/kore\_genea

Обязательн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запись

## К 2052 году население сократится в 15 регионах РК

Из-за хронически низкого уровня рождаемости к 2052 году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сократится в 15 из 17 провинций и крупных городов РК,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города Сэчжона. Согласно отчёту, опубликованному 28 мая национальным статистическим управлением, в 2022 году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Сэчжона, смертность превышала рождаемость. В 2052 году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жителей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Намдо составит 64,7 года,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64,6 года, а жителей Сеула 56,1 года. Если рождаемость сохранится на нынешнем уровне, численность южнокорейцев в возрасте до 14 лет, которая в 2022 году составила 5 млн 950 тыс. человек, или 11,5%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в 2052 году упадёт до 3 млн 610 тыс. человек и составит лишь 7,8% населения. Число людей старше 65 лет, которое в 2022 году составляло 8 млн 980 тыс. человек, или 17,4% населения, составит 18 млн 860 тыс. человек, или 40,8% населения,- говорится в отчёте.

KBS World

## 85,6% жителей РК требуют от врачей прекратить забастовку

85,6% южнокорейцев считают, что медицинские работники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медицинских вузов должны прекратить забастовку против пла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увеличить приём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проведённого 28-29 мая среди десяти тысяч человек агентством Southern Post по заказу Корейского профсоюза работник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медицинской отрасли. Лишь 12% опрошенных поддерживают коллективные действия медиков. 16 мая Сеульский апелляционный суд отклонил требование медработников приостановить действие решения властей об увеличении набора в медвузы. Решение суда поддержали 70,4% участников опроса, а 18,1% не согласились с ним. 65% респондентов заявили, что власти должны увеличить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в медицинских вузах, а 29% поддерживают врачей, призывающих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тказаться от медицинской реформы.

KBS World

## РК, США и Япония проведут учения Freedom Edge

РК, США и Япония проведут нынешним летом совместные многоплановые учения Freedom Edge с целью укрепл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фоне растуще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угрозы. Как сообщили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военном ведомстве,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достигнута в ходе переговоров министров обороны трёх стран Син Вон Сика, Ллойда Остина и Минору Кихары, состоявшихся 2 июня в Сингапуре на полях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 «Диалог Шангри-Ла». Учения Freedom Edge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в воздухе, на море, под водой и в киберпространстве. О сроках и месте проведения учений не сообщается. Ранее три страны проводили совместные морские и воздушные учения. Многоплановые учения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впервые.

KBS World



## Летний Кубок КВН-2024 пройдет на Сахалине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руководитель телевизионного творче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АМИК» Александр Масляков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Летнего Кубка КВН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частие в игре, которая пройдет уже в августе этого года, примут чемпионы последних двух сезонов Высшей лиги КВН.

– Сегодня состоялось поистине историческое событие. Мы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Телевизионным творческим объединением «АМИК», людьми, которые более полувека организуют игры КВН. С этого момента мы можем с полной уверенностью сказать: «Мы начинаем подготовку к проведению Летнего Кубка КВН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ля наших жителей этот кубок – возможность вживую прикоснуться к легенде телевидения, посетив съемки передачи, для гостей, которые наверняка захотят попасть туда – возможность лучше узнать Сахалин, его красоты 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о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ак обещают организаторы, мероприятие станет ярким и запоминающимся для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Зрители на Сахалине смогут насладиться выступлениями команд из разных городов и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в ходе которых они поделятся с гостями своим талантом и чувством юмора.

– Для нас это большой вызов, но уверен это будет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и необычно. Мы стремимся поближе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Дальним Востоком, с гостеприимством, красотой и душевностью этого региона. Надеемся, что Летний Кубок КВН принесет только положительные эмоции каждому участнику и зрителю, – поделился Александр Масляков.

Съемки пройдут уже в августе этого года. В них примут участие чемпионы последних двух сезонов Высшей лиги КВН.

Отметим, развитию культуры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уделяют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открылись новая сцена Чехов-центра и репетиционные залы для занятий вокалом и хореографией, появляются новые выставочные площадки и мастерские для художников. Сахалинская филармония представила новы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и эстрадно-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ы, музыкальный театр. Проходят масшта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такие как концерт «Своих не бросаем» и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активно строятся новые дома культуры и творческие центры. В этом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оют цирк, выставочный зал «Современник», филиал Щукинского училища и акустический зал для симфонической музыки на базе университета. Культура становится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жизни островитян.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лучших проекто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Для участия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для субъект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в этом году поступило 13 заявок из 12 город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Конкурс проходит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и нацпроекта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РФ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За федераль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оборются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Долинск, Корсаков, Курильск, Макар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Холмск. Впервые решение об участии приняли Анива, Оха, Ноглики, Поронайск, Южно-Курильск.

Все 13 заявок успешно прошли предзащиту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 ждут одобр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экспертов. До 20 июня сформированные пакеты документов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в Минстрой России.

–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растет количество заявок. Новые города, видя положительный опыт своих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ов –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прошлого года, – принимают решение об участии и присылают свои заявки. В свою очередь, мы максимально поддерживаем их решение, помогаем в подготовке заявок, оформлении необходим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проходя этот не простой путь вместе с командам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 отмет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компетенций по вопросам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министерства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иктория Доля.

Так, о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ступила заявка на комплексное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набережной реки Рогатка. Холмский район представил проект «Зеленая гавань», который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парка на улице Шевченко. От Южно-Куриль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поступило две заявки с проектами – по обустройству пешеходной лестницы со смотровой площадкой и по преобразованию территории маяка. Поронайск предлагает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площадь имени В.В. Пермякова и прилегающие к ней территории.

– Чтобы повлиять на облик нашего города, мы стараем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все возможности. Одна из них – это участие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лучших проектов создания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в малых городах и исторических поселениях. На конкурс представлен проект площади имени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В. Пермякова. Чем больше жителей,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бизнеса, городских сообществ, молодежи и активистов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обсуждении, тем выше шанс у Поронайска получить федераль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на преобразование нашей площади. Победа в конкурсе стала бы главным подарком городу к 155-летию Поронайска,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а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Антон Карпуков.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лучших проектов создания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участвуют города с численностью жителей до 250 тысяч человек, а также исторические поселения федерального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Ежегодно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выделяется общий призовой фонд в размере 5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который распределяется среди победителе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инстрой России впервые запустил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отдельно для субъект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бедителями стали 11 проекто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из До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Холмска, Курильска,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Музей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в Смирных откроют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приступили к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музея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Здесь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я Байдакова состоялось рабочее совещание по вопросу реализации первого этапа создания музея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наступательной операции» в селе Рошино.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осмотрел площадку будущего музея.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запланированы работы по сооружению противотанкового рва, оборудование парковочной зоны и площадки для зрителей. Окончание строительных работ запланировано на август 2024 года. Полностью сдадут объект в 2025 году.

– 10 августа здесь по традиции пройдет реконструкция боя за пост Хандаса, которая соберет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и к этому моменту большая часть работ должна быть уже завершена. Подрядчик должен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все ДОТы и ДЗОТы и парковочные места, этот музей должен привлекать не только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но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а,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Штурм полицейского поста Хандаса 11-12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 это одно из важнейших героических сражений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Тогда Красная армия, перейдя границу на 50-й параллели, столкнулась с первым укрепленным пунктом на своем пути. Солдаты и офицеры проявили небывалое мужество, смогли сломить сопротивление противника и взять этот пост.

Сохранение памяти о героях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 приоритет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в работ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Ежегодно на островах проходят поисковые экспедиции. Сегодня завершила всю работу юбилейная межрегиональная поисковая экспедиц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ронт — 2024». В этом году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в пятый раз и собрало более 75 поисковиков из 22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 большая часть команды — это молодежь в возрасте до 35 лет. Участники экспедиции, среди которых не только россияне, но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работали в районе реки Туманной, между селами Рошино и Победино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 течение двух недель волонтеры-поисковики тщательно исследовали местность в поисках останков советских солдат, обучились навыкам тактической медицины, провели экологическую акцию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опки «Обзорная», где в августе 1945 находился Харамитогский укрепрайон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а также очистили территорию возле памятника погибшим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 Во время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исковой экспедиц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ронт — 2024» состоялась торжественная передача солдатского медальона Терентьева Андрея Гавриловича. За две недели нам удалось найти останки двоих наших бойцов и пятерых японцев. И мы нашли обломки двух самолетов, – поделился итогами экспедиции руковод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и» Артем Бандур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ронт-2024» проходит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с 20 мая по 4 июня. Организатором ежегодного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ает Сахалинское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Ф,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МО ГО «Смирныховский» и ООД «Поисковое движение России».

## Два глубоководных порта создадут на Сахалине

В Корсаковском и Поронайском районах планируют построить глубоководные порты.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близости от них будут созданы два промышленных района – южный и центральный. О планах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ходе отчета перед депутат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а мы связываем с глубокой переработкой сырья, прежде всего, углеводородов и созданием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ого хаба. Вокруг Поронайского порта планируем создать предприятия по выпуску продукции с высокой добавленной стоимостью из углеводородов. Это завод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топлива мощностью 4,5 миллиона тонн с дальнейшим увеличением до 10 миллионов тонн в год, а также газохим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с производством полимеров и минеральных удобрений. Возможна разработка Вахрушевского угольного месторождения с запасами угля свыше 50 миллионов тонн. Также в планах строительство цементного завода, – рас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орсаковский порт будет ориентирован на переработку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и и перевалку контейнеров. Объект вошел в состав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Летом этого

года организуют пилотный рейс по перевозке груза между Архангельском и Корсаковым. Сейчас собирают заявки от бизнес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этого маршрута позволит сократить время и затраты на доставку. По морю он займет 28 дней, а по железной дороге – 49 дней.

Уделяется внимание также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му комплексу. За 5 лет в регионе в 1,8 раза увеличилось производство молока, в 1,2 раза выросла обеспеченность мясом, на 30% увеличены тепличные мощности. Таких показателей достигли за счет поддержки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В этом году запускается первая очередь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с сервисами по обслуживанию скважин и трубопроводов, ремонту газовых турбин, двигателей и генераторов. Обслуживание проектов будут вести российские компании.

Также в этом году запустят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агропарка. Он обеспечит хранение овощной продукции, которая раньше не доживала до нового урожая. Там же будут созданы площади для глубокой переработки сельхозпродукции, которая выращивается в регионе.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й комплекс области обретет четыре новых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х завода и четыре судна рыбопромыслового флота. За счет этого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ится переработка рыбы.

Отметим, по итога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рейтинга состоя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в 2023 год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яла 4-е место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Такого результата не удалось бы добиться без личного участия в этой работе губернатора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 подчеркнул депутат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лександр Шарифулин. –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региона неразрывно связано с глубокой переработкой сырья и созданием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ого хаба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Включение Корсаковского порта в состав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значительно сократят время и затраты на доставку грузов из Европы в Азию.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планов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кластера глубокой переработки углеводородов в регионе появятся предприятие химпрома и производство водородного топлива. Это создаст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и укрепит экономику региона.

В целом в 2023 году объем валов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дукта оценивается в размере 1,6 триллиона рублей – рост на 12% к предыдущему году. Объем инвестиций в основной капитал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оставил 305,4 млрд рублей. Это новый рекорд – рост составил 4% к уровню 2022 года.

Отметим, 73% инвестиций от общего объема направлены в отрасли, не связанные с сырьевым сектором. Например, строительство, транспорт, рыбн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туризм, лесопереработка. В 2019 году на них приходилось лишь 38%.

##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уже год работает проект «Мобиль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бригады»

Проект «Мобиль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бригады» запустили год назад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офильные врачи регулярно выезжают в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и проводят первич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и осмотры.

За год существования проекта количество врачей увеличилось до 61 человека, каждый из них – специалист высшей категории. А количество принятых за месяц пациентов выросло до 16 тысяч.

– Мобильные бригады помогают решать вопросы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Мы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делаем всё необходимое – полностью готовим кабинет, проверяем анализы пациента и актуализируем их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 приезжими врачами в связке всегда работают наши медсестры. Это позволяет специалистам быть полностью сконцентрированными на проблемах горожан и не брать на себ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обязанности, – рассказ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ного врача Холмской ЦРБ по поликлинической работе Екатерина Варварина.

В поликлинику Холмской ЦРБ приехала группа специалистов мобиль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бригады. Трое врачей – два терапевта и оториноларинголог провели осмотр жителей. За смену каждый из них принял больше 25 человек. Мобиль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бригады каждый день посещают разные районы области, закрывая потребность в приемах населения. В Холмске за этот месяц узкопрофильные врачи побывали 20 раз. Особая потребность сейчас ощущается в терапевтах и отоларингологах в связи с отпуском и больничным листом. Они приезжают каждый будний день, пока штатные сотрудники не выйдут на работу. Оториноларинголог Лариса Куклина приехала на Сахалин всего месяц назад из Хабаровска. О наборе сотрудников узнала из рекламы в интернете.

– Я с 1989 года работала в Хабаровске и когда увидела объявление с приглашением на Сахалин, сразу заинтересовалась. Было любопытно попробовать свои силы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За месяц я успела побывать в Смирных, Корсакове, Поронайске и Холмске. Эмоции только положительные – интересные города, потрясающая природа, отзывчивые люди, – поделилась Лариса Куклина.

Напомним, что записаться к специалисту мобильной бригады можно по номеру 1-300 или через лечащего врача. Врачи охватывают не только районные больницы Сахалина, но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Обеспечивать бесперебойную работу приезжих врачей помогает автотранспорт, поступивший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модернизации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нацпроек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기념 '재외동포와의 대화' 개최

국내외 동포 온·오프라인 참여...국회 · 관계부처 등도 참석해 축하  
이기철 청장 '재외동포가 묻고, 재외동포청장이 답하다' 통해 1년 성과 소개  
"따뜻한 보듬기·민생 도움·손톱 밑 가시 빼주고 파급효과 큰 정책 추진할 것"

### (2면의 계속)

▲ 해외 비즈니스에 대한 노하우와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불편했던 '손톱 밑 가시'를 지적하는 동포들도 있었다. 해외 거주 중인 동포들이 국내의 일반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인증을 위한 국내 휴대전화 회선 등이 없어 겪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이에 이 청장은 "재외국민이 한국 휴대전화와 국내 계좌가 없이도 여권정보를 기반으로 본인인증을 받아서 국내의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적회복 심사기간이 6개월 이상에 달하며, 심사기간 국내 체류하는 경우 생계, 거주 등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이 청장은 "국적회복 신청 후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6개월 전체 기간 동안 반드시 국내에 체류할 필요는 없으며, 국적회복 허가 결정 시점에는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관련제도를 설명했다.

또한, 국적회복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의견 대해서는, 우수한 동포의 국내 유입과 인구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국적회복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동포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내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법무부, 국회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이라고 밝혔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허용 시기를 놓치고, 복수국적으로 인해 현지 주류 사회로 진출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이 청장은 "복수국적 제도로 인해 병역 면탈 의도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적 제도 전반에 대한 홍보와 설명을 강화하고,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국적심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기념 '재외동포와의 대화'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 다섯번째부터 김봉규 전 재외동포재단 제1대 이사장, 이구홍 전 재외동포재단 제4대 이사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김경근 전 재외동포재단 제6대 이사장,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

의위원회에 참석해 적극 의견을 개진하며, ▲중장기적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인식 개선사업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부처에 재외동포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여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최근 재외동포들이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

도록 조치해 동포들이 입국하는 과정에서 모국에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했다는 사례도 언급되었다.

재외동포 교육 현장에서는 차세대 동포들의 한인 정체성 함양을 위한 맞춤형 교육자료 지원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이 청장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

한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적극 추진하고, 교과서 출판사들과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만간 한글학교 교육현장에서 풍부한 자료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또한,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동포사회, 외교부와 협업해 외국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차세대 동포는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고, 거주국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해 우리 동포가 주류 사회로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며,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등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지난 1년 간 재외동포청은 70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사회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 효과가 재외동포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 재외동포청-경인교대, 재외동포 정체성 교육 강화 업무협약

이기철 청장, 미래 선생님에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 교육' 첫 진행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 교육을 강화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경인교육대학교(총장 김창원)와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28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경인교대에서 이기철 청장과 김창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두 기관은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함께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 인식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재외동포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함께하기로 했다.

이 청장과 김 총장은 이날 차세대 동포들에게 뿌리인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적으로 발전한 자랑스러운 국가라는 사실을 알려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해외에 있는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거주국 내 지위 향상을 위해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 교육과 확산을 위한 협력과 함께 해외 한글학교 운영에 따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모델 개발 등 차세대 동포교육의 발전을 위해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국내 외국적 동포의 증가, 고령 동포의 모국 귀환 등 국내 체류동포 증가로 발생하는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에 앞서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을 통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령기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외동포에 대한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돼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국내 체류 동포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이기철 청장은 체결식에서 "모국이 동포사회를 지원하는 동시에 거주국에서 영향력을 갖게 된 동포사회가 모국을 지원하는 상생발전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교육이 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외동포사회는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



상 등 모국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내국민은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 등 동포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간의 유대감이 증진한다면 글로벌 중추국가로 실현하는데 있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재외동포청과 함께 교육을 통해 주요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는데 협력 파트너가 되어 기쁘다."면서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갖고 동포 교육 발전에 있어서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철 청장은 MOU 체결식 후 미래의 선생님인 경인교대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진행하는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의 일환으로 특강을 했다.

이 청장은 '재외동포정책과 교육'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긍정적 인식 제고와 함께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동포청의 주요 정책과 정책 시행에 있어 미래 교사들의 역할 등을 소개했다.

학생들은 강연을 들은 뒤 "그 동안 정확히 알지 못했던 재외동포와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알게된 시간이었다. 나중에 선생님이 되어서도 오늘 강연을 기억하며 학생들이 재외동포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동포들이 모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을 이해하고 먼 타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한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는 동포청의 노력에 미래의 교사로서 함께 동참하고 싶다"고 공감을 표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 전세계 한인경제인 수장이 되기까지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의 휴먼스토리

월드옥타, "모국과 상생하는 단체 위상 재정립" "수출 침병 초심으로 돌아가 향후 100년 비전 세울 것"

### (전호의 계속)

특히 세계적인 경제난부터 시작해서, 신병전체제가 더 강해지는 상태잖아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진영으로 빠져야 하는 상태에서,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이겠지요?

결국,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모국이 잘 돼야 뿌듯함을 느끼며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해야 계속 선진국으로서 풍요롭게 사는 민족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양극화되는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너무 극단화시키지 말아야죠. 상대방이 나와 다르구나라고 생각해야지, 상대방을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

는 것은 지양해야할 것입니다. 특히나 같은 처지에 있는 해외 동포로서 서로가 조금은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순수 민간경제 단체인 월드옥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월드옥타 회원이 돼서 더욱 더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걸맞는 '품격 높은 월드옥타, 자존감 있는 자랑스러운 월드옥타,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월드옥타'를 만들기 위해 더욱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서울)=동포저널】  
이석수 편집인

## 재일동포 어린이들 8월 초 한국서 '잼버리'... "뿌리의식 함양"

재일민단 주최 '2024 재일동포 어린이 잼버리' 8월4~7일 나흘간 서울 올림픽파크텔서 열려

재일본대한민국단(단장 김이중)이 오는 8월 4일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나흘간 '2024 재일동포 어린이 잼버리' 대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2024 재일동포 어린이 잼버리'는 재일동포 어린이들이 모국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뿌리의식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잼버리에는 일본 전역의 초등학교 5~6학년 동포학생 23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방한 기간 동안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 머물며 재일동포 역사에 대한 강연 청취, 국내 초등생과의 교류 활동 및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등을 하게 된다. 김이중 단장은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동포 3~4세는 모국과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며 "이들에게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귀속감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고 밝혔다. 참가 희망자는 민단 각 지부·지방본부나 홈페이지(<http://mindan.org>)를 통해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청이 후원한다.

(재외동포신문)



##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창조 산업 축제 열려

6월 2일(일) 가가린문화. 휴식공원에서 '마야크' 아트센터가 창조 산업 출범 축제를 열었다. 이 행사는 전 러시아 <최고들의 활동> 축제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시공원의 노래하는 분수대 옆에서 열린 축하행사의 일환으로 사할린에 창조 산업개발을 기념하는 축제가 진행됐다. 또한 주최 측은 수공예 장인들과 디자이너들의 작품 시장을 열고, 사할린 주민들의 작품 전시회와 거리 예술 및 <콜라주-움직임> 자체 기획의 행사를 비롯해 본격적인 패션쇼를 펼쳤다. 행사의 고객들은 G42팀의 디제이(DJ)세트도 즐겼다.

도시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독특한 수공예 장식품을 구입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줄 선물 만들기도 할 수 있었다. 누구나 디자이너가 제공하는 새 옷을 입어보며 즐거워하고, 화가들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끽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 시간을 보낸 것이다. 동시에 주최 측은 계몽적인 프로그램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민들에게 사할린주 청년정책과 애국교육,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활동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креативных индустрий

2.июня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ени Ю.А.Гагарина прошел выездной фестиваль креативных индустрий от арт-резиденции «Маяк».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Движения Первых».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ика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рядом с поющими фонтанами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посвященный развитию креативных индустрий на Сахалине. Там же организаторы развернули маркет дизайнеров и мастеров

ручной работы, выставку фондов творчества островитян, площадку стрит-арта и собственного проекта «Коллаж-движ», а также полноценный модный показ. Гостей мероприятия порадовали сетами диджеев команды G42.

Жители и гости города смогли приобрести уникальные изделия ручной работы или сделать подарок близкому человеку. Также любой желающий смог порадовать себя обновкой от дизайнеров и насладиться яркими и красочными работами художников. А главное — провести время в компании творческих людей.

Помимо этого,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организаторы уделили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программе. Жителям рассказали о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патриотическом воспитании и об общественных движениях, где подростки могут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и таланты.

### 세계 자전거의 날 사할린에서 기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세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날(6월 3일)을 대규모로 기념한 가운데 대규모 크로스컨트리 경주에 연령 2세 이상 - 성인에 이르기까지 200여 명이 참가했다. 이 행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주도로 조직된 <인구통계학> 국민기획에 <스포츠는 생활의 표준>이라는 연방 기획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어린 자전거 선수들은 400m와 1km 코스에서 경주를 펼쳤고, 성인들은 60m의 경사가 있는 3.5km 코스에서 경기를 치렀다. 여자 선수들은 크로스컨트리 2바퀴, 남자는 3바퀴를 돌아야 했다. 이번 행사의 주최자인 이완 부타코브는 "모든 자전거 애호가들을 위해 우리가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 동계 스포츠 종목 올림픽 예비 스포츠학교 구역에서 경기 진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이용할 수 있는 코스들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 На Сахалине отметили День велосипедис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масштабно отметили Всемирный день велосипедиста (3 июня). В масштабной кросс-кантри гонке участвовало около двухсот спортсменов в возрасте от двух лет и старше.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но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порт

— норма жизни» нац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созданного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Юные спортсмены состязались на дистанциях 400 метров и 1 километр. Взрослых ждала трасса на 3,5 км, с перепадом высот 60 метров. Женщины преодолели два круга по пересеченной местности, мужчины — три.

«Мы организовали большой праздник для всех любителей двухколес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ШОР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подготовили трассы, которые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не только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соревнования, но и для укрепления здоровья», — поделился организатор стартов Иван Бутаков.

### 사할린 집행관들, 4일 만에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230만 루블리 받아내

아동보호의 날을 앞두고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사할린주 집행관들이 자신의 의무를 잊은 부모들을 찾아가 양육비 채무로 230만 루블리를 받아냈다고 사할린주 연방 집행관 관리부가 전했다. 4일 내내 무책임한 부모에 대한 66개의 집행장이 발부된 가운데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의 개인 차량을 포함해 재산을 압류해야 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을 하지 않아 수배 중이던 2명을 찾아내 이들은 법적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 Сахалинские приставы за 4 дня взыскали 2,3 млн рублей с алиментщик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реддверии Дня защиты детей с 27 по 31 мая судебные приставы наведались к родителям, которые забыли о своих обязательствах, и взыскали 2,3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с алиментщик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судебных приставов.

Всего за четыре дня на нерадивых родителей было составлено 66 актов выхода. В семи случаях пришлось наложить арест на имущество, в том числе и на личные автомобили.

Также удалось найти двоих неплательщиков алиментов, находящихся в розыске. Теперь они ответят по закону.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4 года!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6 месяцев — 646 руб. 9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бонса 편집부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Реклама

Березка 2

Лужники

М<sup>2</sup>

Эконом

ул. Украинская

пр-т Мира

РАССРОЧКА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